###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몽마르트르 거리 풍경'이 최근 경매에서 약 175 라. 억 원에 낙찰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이지만 고흐의 작품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자 신을 치료해 준 의사에게 치료비 대신 그려 준 그림 '가 셰 박사의 초상'은 1990년에 약 880억 원에 팔렸다. 평 생 900여 점가량 그림을 남겼으니 고흐 그림의 자산 가 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흐는 동생 테오가 딱 한 점 사 준 것을 제외하면 살아생전에 그림을 한 점 도 팔지 못했다고 한다.아무도 그 재능을 알아주지 않 은 탓이다.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열다섯 살 때 중학 교를 자퇴한 후 화랑 점원, 교사, 보조 목사, 서점 점 원, 전도사 등 여러 일을 해 보았지만 불안정한 정신 상 태와 과격한 성격 탓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시 엔'이라는 매춘부와 동거 생활은 가족과 주위 사람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녀와 헤어진 후 평생 독신으 로 살게 된다.

## 화양연화(花樣年華)

그림에 재능을 보여 화가의 길로 들어섰지만 알아주 는 이가 없어 평생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존하였다. 자신의 귀를 자르는 등 불안정한 정신 상 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비극의 절정기에 오히려 수 많은 걸작을 남겼으며 권총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했 다. 고흐의 삶이 오죽 불행했으면 조용필은 '킬로만자 로의 표범'에서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흐란 사 나이도 있었는데…"라고 노래했을까? 그렇게 천재는 살아서 불행했고 죽어서야 빛을 발했다. 비단 고흐뿐이

타임지 선정 20세기 최고 소설 중 하나로 손꼽히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30만 부가 팔리고 있는 미국 현대문학의 정수 '호밀밭의 파수꾼'은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32세 때 쓴 소설이다. 젊은 날에 발표한 작품 이 워낙 큰 성공을 거두다 보니 이를 뛰어넘을 후속작 은 나오지 않았다. 작품 활동도 점차 뜸해지면서 작가 는 대중의 관심을 피해서 은둔하다가 더는 히트작을 내 지 못하고 91세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인생 절정이 너 무 일찍 찾아온 탓이었다.

'원 히트 원더' (one-hit wonder). 이는 주로 대중 음악에서 사용되는 말로 노래 한 곡 반짝 히트한 후 잊 히는 가수를 이르는 말이다. 수많은 가수가 히트곡 하 나 없이 가수 생활을 마감하는 세계에서 히트곡 한 곡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일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맛본 단맛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아니 맛본 것보 다 더 큰 고통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영화계 최대의 화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었다. 올해는 단연 '미나리'와 배우 윤여정 이다. 영화 '미나리'는 아카데미상 여섯 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75세 배우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배 우조합상 여우조연상, 영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상을 받는 바람에 몇 관 왕이니 세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으니 그녀의 수상 소식 을 알리는 신문 기사 제목이 '윤여정 또 수상' 일 정도였 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영화인의 꿈의 무대라 할 수 있 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윤여정은 25세에 데뷔작 '화녀'로 제1회 시체스 영화 제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던 주연 급 배우였고 한동안 전성기를 누리는 듯했다. 하지만 많은 여배우가 나이 들어가면서 은퇴하여 젊고 아름답 던 모습 그대로 대중의 기억 속에 박제되는 것과 달리 윤여정은 데뷔 후 5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할머니 역을 비롯해서 주연·조연 혹은 악역 등 가리지 않고 여러 역 할을 맡으며 늘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성장하였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조연이 란 게 거름이죠. 나는 꽃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 고 싶어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배우 윤여정은 거름이 아니라 꽃이다. 조연이 아닌 주연이다.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 한 순간을 뜻하는 말이다. 그녀의 화양연화는 바로 지 금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화양연 화는 언제쯤에나 올까?

## 종교칼럼

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며칠 전 제주에서 귤을 사왔다. 맛은 좋았지만 귤껍 질 깔 때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윗부분은 그런대로 까 졌지만, 아래로 갈수록 껍질이 속살과 붙어 있어서, 까 면 깔수록 속살이 무더기로 터져버렸다. 껍질을 까던 손은 금세 과즙에 젖어 끈적끈적해지고, 바닥은 누런 액체들로 엉망이 되었다. 처음엔 당혹스럽고 황당했 다. 하지만 한 번 당한 뒤로, 귤을 먹으려 할 때마다 짜 증도 동시에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노릇. 남은 것들은 어떻게든 먹어서 해치울 수밖에.

마침내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잊지 말자는 의미로 그놈은 껍질의 잔해를 버리지 않고 책상 한 구석에 놔 두었다. 그렇게 보름 이상을 잊고 지내다가, 조금 전 우 연히 바로 그 귤껍질이 눈에 들어왔다. 바싹 말라 돌처 럼 딱딱해진 그것은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눈빛으 로 천연덕스럽게 날 쳐다보고 있다. 왠지 모를 웃음이 나왔다.

껍질 까기가 몹시 고약한 이런 귤을 대할 때의 감정 은 일상적인 분노를 대하는 우리들의 감정과 매우 비슷

## 어떤 귤

하다. 항상 곁에 있으면서 짜증을 유발하지만, 그렇다 고 무턱대고 쳐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일상적 분노, 즉 스트레스이다. 일회적이고도 우연한 분노와 달리 일상 적인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곳에서 맥락도 없이 분출되기도 하고, 사소한 언 쟁만으로도 심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물론 대부 분의 일상적 분노는 천천히 안으로 잦아 들어가기 마련 이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신경 쓰 지 않는다면 남의 분노는 물론, 자신의 분노도 잘 포착 하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비록 분노하는 나 자신을 무척 힘들게 할지라도, 분 노는 어디까지나 내가 만든 감정일 뿐이다. 많은 사람 이 놓치고 있는 이 사실 속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열 쇠가 있다. 분노를 실체화하고 분노의 원인을 외부의 대상과 일치시키는 발상, 그러니까 분노를 내가 만든 감정이 아닌 내 마음 밖의 그 무엇으로 간주하는 생각 은 우리들에게 분노를 지속시키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분노의 원인이 다양한 조건들 속에서 탄생한다면, 분 노의 지속은 어디까지나 주로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기 인한다. 설령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이 곧 분노를 유발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분노 역시 자 비심으로 다스려야 한다. 일상적으로 나에게 증오심을 안기는 이가 있다고 치자. 진심에서 우러나와 그 사람 의 행복을 간절하게 빌어 보자.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너무도 진실된 마음으로 빌어 보자. 역겹고 힘들어도 참고 노력해 보자. 그러면 내 안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걸느낄수 있다.

물론 이런다고 분노가 봄날 눈 녹듯 완전히 사라지지 는 않는다. 그 사람이 눈앞에 없을 때는 어느 정도 분노 를 다스릴 수 있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눈앞에 있으면 분노는 다시 고개를 쳐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두번째 지침이 필요하다. 분노를 유발하는 언행들은 숱한 인연과 조 건들이 날실과 씨실로 뒤엉키는 교차점 위에서 탄생한 다. 한 사람에게 고착된 인격과 개성 역시 오랜 시간 동 안 진행된 복잡다단한 상호작용의 소산이다.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비가 온다"라는 말에 '비'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있으 며 그 비가 나에게 오고 있는 형상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정한 상황을 지칭하며 "비가 온다"라고 말할 뿐, 그 상황 어디에도 '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 는다. 분노의 원인을 따지고, 타인과 주변 나아가 세상 과 사회만을 탓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극에 대하여 맹목 적으로 반응하는 단세포적 존재로 폄하하는 처사이다.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리고, 상황은 상황으로 인식하 는 것이 진리를 통찰하는 지혜이자 화를 다스리는 비결 이다. 분노를 무력화하려면 분노의 원인을 찾기보다 감정의 일종으로 분노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 다. 분노가 탄생한 상황을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성이 할 일이다.

어쩌다 껍질 까기 고약한 귤을 만나, 익숙하지만 낮 선 내 안의 감정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래도 귤껍질에 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겠다.

기 卫

# 제13회 광주비엔날레와 '세월오월호'



장경화 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 문학박사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올해 광주비엔날레 전시 주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자장 안에서 건강과 치유, 체계에 관한 포괄적 문화적 존재를 한자리에 통 합'하는 담론이다. 전시 감독은 5개의 전시실을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시켰을까? 자극된 호기심을 품고 비엔날레를 관람했다.

1전시장은 주제의 무거움을 감추고 시각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 디자이너의 배려가 읽혀진다. 특히 티 켓박스를 전시장 내부 깊숙하게 배치하여 일반적인 전 시 행사를 무색하게 하였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민정 기의 신작 '무등산, 천제단도'와 '무등산, 가단문학 정 자도'이다. 이 두 작품은 조선 중·후기 무등산을 배경으 로 형성된 가사문화권의 정자 지도와 천제단의 사원 및 샤머니즘 장소를 그린 지도 양식의 회화이다. 특히 '천 제단도'는 전통회화 기법인 '부감법'으로 과거와 현재 가 함께 공존하고 영적 분위기를 강조했다.

2전시장의 작품들은 상호 공동체적 소통을 위한 구 성이 돋보인다. 관심 있게 본 작품은 섀넌 테 아오의 영 상 작품이다. 흑백의 영상미는 사유를 요구하는 작가

의 전통과 서정성에 근거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과거 를 응시하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한다.

3전시장은 천장에 걸쳐진 망사 천으로 관람 동선을 유도하고 작품과 작품을 연결시켜 마치 신비스러운 동 굴을 연상하게 연출하였다. 관심은 아나 마리아 밀란 의 작품으로 이동한다. 이 작품의 공간은 피곤한 관람 객을 위한 휴식을 제공한다. 비디오 게임과 함께 전시 장 벽면을 통유리로 리모델링하여 바깥의 공원 풍경과 소통하고 눈의 피로를 달래며 잠시 누울 수 있도록 큰 의자를 배치하였다.

4전시장은 현대인 스스로 만든 모순과 욕망, 자본주 의 가속화로 얻는 고통과 비명을 통해 양산된 새로운 돌연변이들에 주목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설치 작가 티모테우스 앙가완 쿠스노의 작품에선 천장에 매 달린 다양한 형태의 종이 등이 바닥을 향해 내려오고 거적에 덮인 동물 주검 앞에 까마귀가 모여들고 있다. 주검이 된 동물과 까마귀는 함께 외치며 불을 밝히고 있지만, 어둡고 무거운 기운은 감출 수가 없다.

5전시장은 여성의 지혜가 축적해 온 모계사회의 문 화와 지식을 펼쳐 보인다. 그래서 전시장은 어둡고 음 습한 음기를 연출시켰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전시장 안 쪽에 숨겨둔 작가 릴리안 린의 작품에 관심을 갖는다. 어두운 창살 속에 수제 유리로 만들어진 대형 조각 작 품은 전기로 연결돼 있고, 조명이 꺼지면 일본 가수가 속삭이는 시가 흘러나온다. 은유적인 여성 가수의 노 래는 초현실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비엔날레 전시장은 무거운 철학적 전시 주제를 완성

도 높고 경쾌한 구성으로 엮어 내 베니스비엔날레나 카 셀 다큐멘타에도 뒤처질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몇 가지 아쉬움도 감출 수가 없다. 그중 하나는 전시장 내부에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광주비엔날레 측에서는 누구를 위해 비엔날레를 개최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 해야 한다. 음성 오디오 설명 기기가 있다고는 해도, 난 해한 현대미술의 설치와 영상임을 고려한다면 일반 관 람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섬세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 다. 이것이 광주비엔날레가 대중에게 다가서는 친절이 며,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비엔날레를 둘러보며 필자의 비엔날레 경험이 자연스 레 떠올랐다. 필자는 1995년 1회 창립에서 1997년 2회 까지 전시부서 실무 업무와 이후 두 차례의 특별전 큐레 이터를 맡아 전시를 구성하였다. 그중 2014년 제10회,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달콤한 이슬' 공동 큐레이 터는 아픈 기억이다. 다름 아닌 '세월오월호' 전시이다.

당시 공직자 신분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고 나약하 고 한계가 있었던가? 결론적으로 당시 '세월오월호'는 전시장에 설치했어야 했다. 큐레이터인 필자는 작가의 예술 표현 자유가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보호될 수 있 도록 했어야 했다. 광주이고 광주비엔날레이기에 더욱 그래야 했었다. 그러나 필자는 당시 그렇게 하지 못했 기에 아직도 그 시간이 아쉽고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그 사건은 광주비엔날레 역사로 한국 사회와 세 계 미술사에 교훈으로 남겨져 있기에, 이제는 말하고

## 社說

## 한전공대 '지역인재 전형' 결코 특혜 아니다

학(한전공대)의 신입생 모집 요강이 다 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인 재 전형'이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 대 설립 목적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이 란 말이 무색하다.

그제 열린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더불 어민주당 이혁재 의원(목포4)은 "한전공 대의 지역 인재 전형은 특혜가 아니다"라 며 지역 인재 전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 력 대응할 것을 전남도에 주문했다. 지역 인재 전형은 기울어진 교육 여건을 고려 해 동등한 기회를 지방 학생들에게 주자 는 취지로 보수 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 는 '특혜' 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한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 2000억 원을 한전공대 운영비로 지원하는 점을 거 론하며 지역 인재 전형 도입에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도입이 될 수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올해 도 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는 내년도 학부생 100명 전원 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정원 외 10%를 선발하 는 '고른 기회 균형 전형'도 저소득층이나 조손 가정 및 민주화운동 자녀들에게 돌 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인재 전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의 능력 을 의심하면서 특혜라는 논리를 펴고 있 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 목적이 지역 균 형 발전에 있고, 지역 인재 전형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 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특혜라고 할 수 없다. 설립 목적이 비슷한 울산과학기 술원(UNIST)은 이미 지역 인재 전형으 로 해마다 65명을 선발하고 있다. 한전공 대의 지역 인재 전형 도입을 요구하는 지 역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선 안 될 것이다.

## 계엄군에 숨진 아이 '얼굴' 41년 만에 찾았다

1980년 계엄군의 총격으로 숨진 전재 수(당시 효덕초 4년) 군의 '잃어버린 얼 굴'이 41년 만에 사진으로 발견돼 그날 의 참상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5. 18민주화운동유족회에 따르면 전재수 군의 형 재룡(60) 씨는 지난 1월 부친의 기일을 맞아 앨범을 정리하던 중 동생이 아버지와 고모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 긴 사진을 발견했다고 한다. 전 씨는 수 십 년 동안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동생 사진을 구할 수 없어 애를 태웠다고 한

이 때문에 현재 국립 5·18 민주묘지의 영정 사진은 무궁화 사진이 대신하고 있 다. 하지만 이제 동생 사진을 찾은 전 씨 는 유족회와 함께 내달 5일 어린이날에 맞춰 동생의 영정 사진을 새겨 넣은 묘비 제막식을 열기로 했다.

41년 만에 발견된 전 군의 사진은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재 수 군은 1980년 5월 24일 남구 진월동 마

을 앞동산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다 주둔 군과 출동 병력 간 오인 사격 과정에서 총 탄에 맞아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맞았다. 당시 총소리에 놀라 친구들과 도망치던 전 군은 며칠 전 생일 선물로 받은 고무신 이 벗겨져 주우러 돌아섰다가 총에 맞아 숨진 것이다.

재수 군의 경우처럼 영정 사진 대신 무 궁화 사진으로 대체된 5·18 유공자 묘지 는 행방불명자를 포함해 모두 49기에 달 한다고 한다. 이제 보훈처와 광주시 그리 고 광주시교육청 등은 학적부나 주민등록 관련 서류 조회 등을 통해 이들이 '얼굴' 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5·18 행방불명자로 공식 인정되고도 시신 을 찾지 못한 이들(78명)의 암매장지를 찾는 작업도 포기해선 안 된다. 올해 41주 기 5·18을 맞아 이들 희생자들의 주검을 찾아 주는 일은 유족들의 한을 풀어 주고 은폐된 5·18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 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 無等鼓 🕡

죽순

비록 미식가는 아니지만 봄철이면 으레 식탁에 봄나물 한두 가지쯤은 올려 먹는 다. 냉이 된장국이나 쑥국을 끓이고, 뜨거 운 물에 살짝 데친 두릅을 초장에 찍어 먹 는다. 입맛이 없을 때면 달래장에 밥을 비 벼 먹는 맛도 그만이다. 부모님의 고향이 대나무의 고장인 담양인지라 이맘때 죽순 초무침을 먹는 것도 습관이 됐다.

나물마다 맛과 영양도 다르고 요리법도 다양하지만 죽순만큼 용도가 많고 사연이 많은 나물은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죽순은 은은한 향에 아삭한 식감

을 지닌 진귀한 음식이라 하여 '산진' (山畛)으로불 렸다. 그래 우리나라는 물

론 중국·일본에서도 고급 식재료로 쓰였다. 대나무는 세계적으로 1400여 종이 있는 데 한국 대나무는 맹종국·왕대·솜대·오죽 등 모두 14종이다. 전남 지역에는 왕대와 솜대가 많고 경남에는 맹종죽, 강원에는 오죽이 주를 이룬다. 그중 맹종죽이란 이 름에는 사연이 있다. 1800년 전 중국 오나 라에 이름난 효자로 '맹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맹종은 어느 겨울 병든 노모가 드 시고 싶다는 죽순을 구하러 대나무밭에 들 어갔다. 하지만 때가 아니라 구할 수 없어

대나무를 붙잡고 슬피 울었다. 한데 갑자 기 눈속에서 죽순이 솟아났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맹종읍죽' (孟宗泣竹)이라는 사 자성어가 생겼다. 중국 사람들은 이를 가 장 아름다운 효(孝) 이야기로 꼽는다.

중국인들이 죽순을 즐긴 것은 맛 때문 만은 아니다. 그들은 예로부터 죽순을 선 비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다. 북송 시대 시 인 소동파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고기는 먹지 않아도 되지만 죽순 없이는 못 산 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지고 죽순

> 이 없으면 저속해진다. 빠진 살은 회복할 수 있 지만 저속한 사람은 쓸 모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죽순을 구한 효 자 설화가 곳곳에서 전해진다. 조선시대 에는 효도를 상징하는 죽순과 장수를 상 징하는 잉어를 함께 그린 민화가 유행하 기도 했다.

담양군이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대숲을 보호하기 위해 죽순 불법 채취를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죽순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된 지 오래다. 그러니 아름다 운 대숲 보존을 위해 죽녹원의 죽순은 눈으 로만 즐기자. /채희종 사회부장 chae@

### 光则日報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 X 222-0195⟩

부 220-0692

부 220-0694

부 220-0621

체 육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